세상길 백안시하고 주의 길 걷는 맛

(출33:12~23)

12.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길 백안시하고 주의 길 걷는 맛>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길 백안시하고 주의 길 걷는 맛'
오늘 함께 읽은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라고 합니다. '선민이 왜 선민이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언급을 합니다. 내가 선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는 말은 주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한 번 주의 길을 걷는 맛을 들이면 도무지 다른 길은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본문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을 빨리 도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즐겁고 맛있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길을 걷게 되는 맛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한 6개월가량을 주의 길을 걸어서 시내 산까지 왔는데 이 주의 길을 걸어 본 맛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주의 길을

걷는 맛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두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길은 나만 걷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가십니다. '친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얼굴'이라는 뜻의 '파니'라는 단어로 '나의 얼굴이 가리라'는 뜻입니다. 주의 길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쉼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나는 쉽니다. '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평강과 만족과 행복의 안식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이 그 목표를 향해 직접 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내가 피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은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데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맞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의 길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는 이 상황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상황에서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갈 길인데 그 길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가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가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 방향을 등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그 방향을 따라 함께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맞서서 주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당신의 얼굴로 친히 가시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셔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가시는데 등을 보면서 가게 되는데 아무리 등을 보며 쫓아가더라도 나도 피곤하니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등을 보이시며 쉬게 하신다.'는 말은 '업고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부바해서 모세를 업고 가시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분명히 길을 가기는 가는데 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모세가 가야 될 길을 직접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속이 타고 애타고 있다면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피곤할 수 있어서 잠도 자야하고 배고 고프면 먹어야 되고 힘도 보충해야 합니다만, 마음은 육체가 피곤하거나 아니거나 평강 가운데 있고 그 평강 가운데서 쉬는 중에 인생이 진행되며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목

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돈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향해 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서울대에 들여보내고 싶은데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고 계신 주의 길이 아닌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니 이렇게 힘이 들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세상길을 백안시(白眼視)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안시한다'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흘겨본다'는 말이 '백안시'라는 말이 나오게 된 출처입니다. 흘겨볼 때에 눈동자가 돌아가며 흰자위가 많이 보이게 되므로 백안시(白眼視)라고 합니다. 사람을 흘겨본다는 것은 언짢다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백안시하는 것은 진나라 때의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완적(阮籍)과 연관되어 생긴 말입니다. 위나라가 진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러한 난세에서 세상을 등지고 대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림칠현으로 그 중에 완적이라는 사람은 처세에 능하고 세속의 예의범절에 매여서 벼슬아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을 속물로 봤습니다. 안하무인과는 다르게 이 완적은 사람이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잘못 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업신여김이 백안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안하무인은 내가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완적의 백안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흘겼고 거기에서 백안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백안시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보면 세속의 처세의 길을 따라서 벼슬아치들을 찾아오니 눈을 흘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벼슬아치라고 존경하고 두려워하지만 이 완적은 그 사람의 존재의 무게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흰자위가 많이 보여서 백안시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완적은 자기 앞에 와 있는 잘못된 세속의 길을 걷고 있는 벼슬아치의 존재자체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벼슬아치가 눈앞에 와 있는 그 상황을 백지상태로 보는 의미에서 백안시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안시가 없으면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서 바로 백안시가 나타나는데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합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있는 지점은 지금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그 당시의 근동 지역이나 이집트 북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막이고 광야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주의 길을 보여 달라'며 징징거리고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합니다. 시내 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의 길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목이 곧은가를 초절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나있는 길은 길로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세속의 처세술에 능해서 난세에 벼슬을 하는 자들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완적의 백안시처럼, 모세는 이미 이 세상에 나있는 길에 대해서는 아예 백안시 해버려서 그 길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생각하는 것과 민주주의자, 자본주의자가 생각하는 길이 다릅니다. 생각이 길을 따라 갑니다. 생각의 길은 이념입니다. 손도 길을 따라갑니다. 테니스 선수의 길, 농구 선수의 길, 엄마의 손의 길이 다릅니다. 발길도 다릅니다. 택배 아저씨의 발길, 장사하는 아저씨의 발길이 다릅니다. 온 세상이 다 길로 가득 차 있고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난 길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길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백지로 보고 백안시합니다. 이 세상에 나있는 생각의 길, 손이 가야 될 길, 발이 가야 될 길, 몸이 가야 될 어떤 길도 길로 인정하지 않고 징징거리면서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구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 달라는 주의 길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해야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왼쪽으로 가야 목표에 도달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목표에 도달할지를 모를 때 묻는 것을 주의 길로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가나안으로 다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걷다가 난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다니는 길 자체를 없는 것으로 발을 내딛을 길이 없다고 여기는데 이 기도가 아무에게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기도가 나와야 주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또한 이 기도가 나와야 세상길을 백안시하는 것인데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이라고 나오고 똑같은 말이 17절에 순서를 바꾸어서 반복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백안시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못 갈 때에 나만 쳐지는 것 같고, 나만 누락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길은 길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백만 인이 다 가는 길인데도 그 길을 길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백안시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암호 같습니다. 이 말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가 이름으로만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으로만 아는 자’와 ‘이름으로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선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진짜 존재인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끈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연을 날립니다. 그 연이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면 편지 띄우기를 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종이를 가져다가 한쪽 귀퉁이를 기역자 모양으로 찢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연줄에 끼웁니다. 그러면 그 종이가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연이 있는 곳까지 끈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손에 쥐고 있는 실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 돌판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끈이므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도달해계십니다. 그럴 때에 종이가 연 끈을 따라 연이 있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늘까지 보내지는 것인데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네가 은총을 받았다.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선민들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금송아지와 연결을 시켜버리는데 금송아지는 풍요와 다산입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붙잡지만 마음은 부자 되는 것에 가 있고, 부흥하는 곳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마음이 가질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풍요와 다산, 건강, 부귀영화 다 놔두고 하늘로 마음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네가 내 앞으로 왔으므로 너에게도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호와를 붙든 선민들의 마음이 금송아지로 가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든 목사님의 마음이 교회 부흥으로 가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든 장로님의 마음이 사업의 성공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름으로만 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내 앞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어도 그 길을 백안시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이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길을 가면서 그 길에 난관이 생겨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에야 하나님께 묻는 것을 주의 길로 착각합니다. 미국 액션 영화를 보면 가끔 범인을 자동차로 추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의 영화 만드는 것은 돈을 쏟아 붓는 차원이 다릅니다. 범인이 빌딩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추적하는 주인공이 따라 들어가서 로비의 집기들을 다 깨고 부수고 반대편 빌딩 벽을 부수고 뒷골목으로 나옵니다. 빌딩 안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빌딩이 서있다는 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인데 마음이 하늘에 가서 세상길을 백안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지로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빌딩이 길로 사용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펼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모세는 왜 누구나 다 아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백지화해서 무시하는 것입니까? 즉 백안시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존재를 없는 것처럼 백지로 보는 것입니다. 백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영사기 삼으셔서 당신의 뜻과 길을 비추십니다. '영사한다.'는 것은 필름 속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영사기를 통과하면서 하얀 스크린에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갖고 계신 나를 향한 주의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에 내 마음을 영사기 삼으셔서 이 땅에 영사하시면 그 영사 속에 나오는 길이 빌딩을 뚫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길이고 거기로 가면 되는 것으로 이 길을 가는 맛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쉼이 있는데 하나님의 등에 업여서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왔으므로 내 앞에 은총을 입기도 했기에, 그런 자들에게 빌2:13절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주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상적인 어려움과 현상적인 불통은 빌딩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라 어려워 보이는 것뿐입니다. 돈이 있어서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돈 가지고 사면되잖아요. 이게 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이 길을 백안시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습관, 관습, 문화, 세상의 원칙과 규정, 사람들이 자식을 서울대 보내고 싶어 하는 바람 이것들이 다 길입니다. 마음의 길입니다. 이 모든 길로 가득 찬 세상을 백지로 보고, 하나님께 드려진 내 마음을 통하여 당신의 길을 영사하셔서 길이 보이도록 간구하는 자가 선민이고 모세입니다. 세상길을 백안시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맛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번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연 끈에 달린 메모지가 하늘 높이 가듯이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끈이 되셨으므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한 모든 자의 마음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길을 백안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목이 뻣뻣한 초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연 끈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편지처럼 하늘에 도달하게 하셔서 이 세상길로 가득 찬 세상을 백안시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 등에 업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쪽을 향해 쉬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